

모금활동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박영숙 호아리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이 <성공적인 모금전략 (SUCCESSFUL FUNDRAISING)>이라는 조안 플레너간 (JOAN FLANAGAN)의 책을 번역 출판했다. 이 책은 저자의 모금활동 전문가에 대한 현실적인로서의 대안적인 풍부한 실용성을 현대의 21세기 모금활동의 노하우를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책출판을 계기로 지난 24일에도 호아리단이 주최한 <여성단체의 성공적인 모금전략을 위한 워크숍>에 여성단체의 모금활동가들이 다수 참석을 함께 하고 좋은 모금문제를 의제를 함께 했다.

재단이 의도한것은 여성단체들에게 재단기증의 수익증으로 직접적인 재원지원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자체적인 모금능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이 공감한것은 지금도 모금활동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가 되었고 성공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단체마다 모금전략 및 실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다양한 주무부처이고 있는 여성정책의 행사개최와 주변의 동원등의 주머니를 털고 모금방법을 찾는 것은 단체의 재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여성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모금전문가인 단체의 인재를 위해서 안락적인 재원의 확보와 조직의 합리적 인 운영 그리고 이들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호아리단의 기획연구팀이 노력해야 할 일의 하나로 모금활동가의 전문성을 양성할 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여러 현장에서 만나고 생생한 경험을 상호간에 나누고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과 연대 교육과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재단은 재원지원을 위한 기금이란 의미를 크게 하는 책으로 읽게는 단체들을 이끌어 가는 지도능력을 배양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한다. 물건을 팔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쓰는 '행'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영국!) !

근래에 와서 연방이 되면 훌륭한 수단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재단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그들의 공을 기릴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자금도 함께 수여해서 지상식들을 거행하고 있어서 놀림을 본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재)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이 <교보 환경보호상>을, 11월 20일에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비취의 애생대상)을 그리고 12월에 들어서는 기업이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메세타 대상> 등의 지상식이 차례차례 개최 되었다.

이들 대상의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분야에서의 연구와 적대적 개척정신의 업적을 남긴 분들이다. 수상자들이 피력한 수상소감에서 인상적인 것은 자기 업적을 공개적으로 칭송받는데에는 주저했더라면 상금이 임의로 재량권으로 2상금을 필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위 공익사업 또는 공익활동의 재원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금이 바로 활동의 지원금인 것이다.

지난 12월 18일에는 한국애생재단이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한국애생운동상을 처음으로 애생들이 만든 재단의 행위로 46개 애생단체들에게 3억원의 사업지원금을 전액한바 있다. 시민사회와 공익사업을 위한 재단지원 활동은 최초로 (사)시민운동지원기금 또는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등이 사업공모 활동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진흥을 활동권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 앞서 예시한 3개 지원기구의 (예산 지원금 총액은 한기연의 재단 300억의 예산 정도에 비해 미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오늘날 몇몇 기업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이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지상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들 재단운영이 기업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단이다.

시민사회적 공익활동을 위한 기구문화가 앞서 말한 국가정책에서 기업의 공익재단들이 자기 직책이해를 하거나 단체사명을 개별적으로 보거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는 기업의 이익의 사회환원을 구상해놓고 투명하게 활동하는데 시민사회의 책무가 중요함을 고양할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를 바라는 일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받지 못하면 사회의 발전은 어렵다. 이들을

재단운영 및 조서금리

후지금으로

부영속 (본회 집행위원장)

재단의 조서금리로 후자수익이 줄어드는 국민연금기금, 은퇴저축기금 등 각종연금
과 재단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은 국내 예금이나 후자채권에
후자채권 안의 수익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연도 12월 6일이면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여성재단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대처방법으로 필요하다. 기금액이 커서 후자채권이 늘고 용역기관 후자채권기관에
후자채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있는 여성 재단에서의 고민은 더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본회 70억원의 기금 조액을 은행 예금으로 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행태
에서는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후자채권액이 현재 변동으로 인하여 흉작하고 있는
재단내에서 재정비 중요성을 직면할 수 있다. 기부금원의 정착이 없는 일본에서
이미 저금리시점으로 고령 재정을 맞이하고 있어 못한 재단들이 고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있다.

2002년도 한국여성재단 지위변경을 위한 사업에는 3억원으로 예산하고
있다. 이사업은 예금의 은행예치에서 발생한 수익과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 전환에
있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사업으로 여성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업의 예치에 있다. 기금을 늘리는 일은 물론 재정제에 따른다. 방안으로
목적 모아야 한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2방안이 해를 끼쳐 재단전문의
전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데 있어서 안쪽으로 고령화로 불투명 하다.

한국여성재단 본인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발적인 공공활동을 위한 재금리
기부금에 대한 육성책이 중요하다. 정부나 사회가 전직을 전직사회 전직에 있어서의
변화 기금 또는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나 사회적 우리사회가 기부행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기 위한 조치라는 해
기부금으로만이 기부문화를 장려해 볼 수는 주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이야 한다. 별반 아니다. 중대변동등과 같은 기금관리기반의 약화를 인한 현실
을 보완하는 데에 가장 큰 주전력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가 행정면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시민사회에게
하는 재산을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제 여성 모금운동

미국에 세워진 것은

미국 여성

세계 걸림 키운다

지난 10월 10일 오전 9:00 서울 명동에 있는 조영현빌 코티지에서
미국에서 온 국제적인 모금운동가인 로라 맥도날드 (Laura MacDonald) 하임
이였다.

이사람은 베타팩터 (Benefactor)라고 하는 모금활동 (Fundraising),
자선활동 (Philanthropy), 지도력양성 (Leadership) 등을 지을 하는
활동가로서 책임을 맡고 있다.

한편 이사람은 25개의 여성들을 모금에 두고 있는 세계 WCA의 2500만
불 (한화 약 330억 원)의 모금기금모금을 위해 전세계에 흐트러져 있는
활동가들을 통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세계 WCA가 기금모금을 위해 고용한
전문가 이다.

이사람은 한국 WCA가 계획하고 있는 10월 11~12일 가리 양일간에
한국 WCA 지도력개발 기금모금 캠페인 >을 위한 모금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을 주관하기 위해 내한한 것이다.

세계 WCA가 이 모금기금 모금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로 시작해 왔으므로 미국에 이제까지는 세계(모금)을 대하는 WCA의
대리인이었다 한다. 이제 한국여성운동가들 세계(모금)을 맡게 되면서
한국여성 재단을 통해 시작할 것이라 한다.

한국여성운동가들이 이미 세계여성운동이 함께 개발해나가는 것을 막아
어려운 현실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모금기금>을 위한 우편의
모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담을 나누며 한 것은 기금모금운동도 인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한다. 한국에 회의를 하고
있는 세계 WCA가 한국 WCA를 통해 세계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여성 재단을 위한 지원에 의해 국제적 모금활동
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한국) 세계적 모금운동의
다양한 재단들과의 Network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금이 어떻게 재단의 행정직수들이 3 Ws의 원리
을 지니고야 할까 했는데 그것은 ① 지혜 (Wisdom), ② 활동하는 것
(Work), ③ 풍요 있는 국유화 (Wealth) 등이다.

이러한 것을 한 것은 기부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부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이다.
기부금을 재빨리 할 방법이 있다.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들

백영숙 노회 집행위원장

한국예배재단에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희망나무란 재단
속의 기증장부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증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기증이 재단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면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의 뜻에 따라 20원씩은
그의 이름으로 퇴원으로 하는 사람 대신 기관에게 전액된다. 이름에 있는

첫번째 희망나무는 <유전자 기증>이다. 이나무는 UEC (United Exchange
Cooperation)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회봉사자로, 여학생들 등으로
사신에게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만든 기증이다. 나무를 기증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입해 가는
물품 1%를 후원해 주는 것이다. 그 용량도 70050원이다. 이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많은 국제협력로 영입에 쓰여졌으며 좋은 것이 소원이자. 그리고

두번째 희망나무는 <유전자 기증>이다. 이나무는 96년에 시작하고 있는 비누
제조회사인 (주) 유전자 기증의 최신헌 회장이 비누를 수입해 가는 해를 기점으로
그에 따라 20원씩은 유전자 기증의 1%인 70050원으로 희망나무를 심었다.
사실상의 관습을 기록하고 있는 인치에 있는 김복영의 이길영이 회장이 되어
이것이 비누 기증의 관습과 관습의 이름으로 1만 원씩을 희망나무로 키운다.

한국예배재단 속의 희망나무로는 개인이 심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 가족
들이, 기관들이, 이나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기증할 수 있다. 이 작은
나무들이 재단서 열매를 맺을 때 한국예배재단이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나무의 문화는 아직 20년 전 정도로 못나서 한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황을 보면 아주 좋을 것이다. 희망나무를 재단에 기증하는
이들은, 희망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호망을 기대해 본다.

50년
이것이 기증한 희망나무의 이름이다.